

투데이 칼럼

국가소방,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섬겨야

2019년 11월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4월부터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전체 소방공무원 5만여 명 중 국가직은 630여명(1.3%)에 불과했고 지방직은 4만9500여 명(98.7%)에 달하였는데, 대다수가 지방직 공무원에 속했던 소방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력·장비에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소방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국가 차원에서 균일한 인력 운영과 장비 보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겨줄 첫 단추가 되어 국민 안전에 방점을 찍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력 강화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지난해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도 경계를 넘는 재난 현장 출동건수는 4,135건으로, 이는 하루 평균 3.8건 정도 지자체 간의



김현철

순창소방서장

벽을 넘는 소방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순창소방서의 경우도 전라남도 소속의 담양소방서와 관할구역이 밀접해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순창의 소방차보다 담양에서 출동하는 것이 골든타임 확보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이 있고, 담양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겨줄 첫 단추가 되어 국민 안전에 방점을 찍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력 강화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그 간 소방은 지방소방체제로서 지자체간 각기 다른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응원 협정 체결 등 상호 간의 재난 대응 공조체계를 별도로 구축하여 재난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재난대응 총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인력, 장비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는 등 하나의 지휘체제로 이루어진 국가소방체제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지난 강원도 고성 산불 발생 당시 전국의 소방차가 집결하여 산불에 맞서는 전례 없는 광경이 그러하며,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맞서 전국의 소방관들과 구급차들이 대구에 집결하여 대응한 감염병 확산방지와 환자 이송 활동들은 재난대응 총력체계의 효율성과 소방 국가직 전환의 실효성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소방은 급속한 산업화,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방업무의 성격도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국의 외부효과를 가지는 대규모 재난의 형태로 변모해 왔다. 이에 따라 소방조직도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고, 지난 몇 년 간 국민들의 많은 지지와 신뢰를 얻어 소방발전은 국민들과 함께 걸어오게 되었다. 요컨대 2017년 소방청 독립은, 그동안 일반행정기관에 가려져왔던 소방에게 우리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20만 명의 국민청원이 이를 뒷받침해 준 덕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방은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지금을 이룬 만큼 자강불식(自強不怠)의 자세로 국민의 안전 부진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의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건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는 시민들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 시의 보행자 도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보행자와 자전거 탑승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이동하고 있다.

도로 점거 시위하는 필라델피아 시민들



지난 30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청사 앞에서 시위대가 도로를 막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취약한 교도소와 이민자 수용소 등지에서 사람들을 풀어줄 것을 관계 당국에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설

코로나19로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크게 흔들리자 금융지주 회장들이 자사주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각 금융지주 주가는 지난해 말 대비 30% 이상 급락한 상태다. 특히 지역을 거점으로 두고 있는 지방 금융지주 회장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JB금융지주의 회장은 최근 자사주 4만주를 추가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회장이 보유한 자사주는 8만5000주로 늘었다. 코스피가 이달 한때 1400선까지 하락하는 등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기치 제고에 적극 나선 것이다.

JB금융그룹 계열사 경영진들도 자사주 매입에 동참해 31만 700주를 취득했다. 지난해 5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한 JB금융그룹 경영진들은 이번을 포함해 1년간 90만 주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BNK금융지주 회장도 자사주 2만 18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 회장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자사주를 매입해 왔는데 현재까지 보유 주식수는 5만6800주다. 특히 BNK금융은 주가안정을 위해 한국투자증권과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70억원 규모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다.

DGB금융지주 회장도 이달 자사주 1만주를 추가 매수했다. 회장은 취임 이후 4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해 왔는데, 이번 매입으로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총 2만5000주로 늘었다. 4대 금융지주 중에선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자사주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5000주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해 주식수를 7만3127주로 늘렸다.

하나금융지주는 회장이 2월에 2000주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해 총 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부회장은 이달 5000주의 자사주를 추가 매수하면서 추가 부양에 힘을 보탤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이 폭락과 급등을 거듭하는 등 혼란스러운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사상 최대 실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황이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방어와 책임 경영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내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전북에도 세 집 건너 한 집이 홀로 사는 1인 가구다. 지난 2019년 전국의 1인 가구 비율은 28.8%에 이른다. 전북은 도내 전체 73만 4천 가구 가운데 혼자 사는 가구가 23만 8천 가구로 32.5%를 기록했다.

1·2인 가구가 전체의 75%를 넘어설 전망이다. 합계 출산율이 0.93명까지 떨어지고 혼인 건수 역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주택 시장도 양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2인 가구가 사는 원룸이나 소형 주택은 꾸준히 수요가 있다.

반면 30세대 중소형 주택부터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차츰 줄어드는 추세다. 1인 가구의 비율이 늘면서 소비생활도 달라지고 있다. 3~4인 가구에 비해 배달 음식을 시켜먹거나 1회용품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장기간 식재료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경우 배달이나 외식 비율이 잦다. 끼니를 그때그때 해결하는 경향이 많다. 영양에서 불균형을 겪을 우려가 크다. 스마트 폰 배달 앱 시장은 최근 4~5년 사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1회용품 사용 증가와 배달 음식 증가는 필연적으로 생활 폐기물과 재활용품 처리 문제가 커지게 된다. 일부 행정 서비스의 경우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증가로 행정상의 전달 상황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부재중에 대신 받아줄 가족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의 발달로 주민에게 직접 연락하는 추세여서 이런 불편함은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1인 가구 비중이 커지면서 갈수록 출산 장려 정책은 물론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적인 혜택 등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사회 현상이다.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밖에 1인 가구들은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곤란을 겪기 마련이다.

대신 신고해주시기도 어렵고 초보적인 응급 처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1인 가구로 사는 사람들의 고독사도 늘고 있다.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복지 행정도 확대해야 할 때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